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과 조상불공 원만 회향 총기4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 전남 고흥 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 부산·경남교구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불교충지종은 7월 16일 각 교구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지난 하반기 49일 불공 기간동안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된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과 조상불공 원만 회향의 일환으로, 서울·경인 교구(교구장 법우 정사)와 충청·전라 교구(교구장 환수원 전

수)는 충남 부여 청소년수련관, 부산·경남 교구(교구장 시정 정사)는 전남 고흥 실내체육관, 대구·경북 교구(교구장 안성 정사)는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각각 법회를 봉행했다. 호강 종령 예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상불공을 회향하며, 또한 큰 뜻의 방생법회이기도 합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법회의 의미를 잘 새기시어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회의 의미를 살렸다. 특히 부산·경남 교구는 각 사원별로 모은 쌀 500Kg을 고흥군 주민복지센터에 기증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각 교구별로 지역 사회 참여가 이어졌다. 통리원=장동욱 기자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기를 세월호 참사 100일 희생자 위령제



▲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세월호 참사 100일 희생자 위령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100일째인 7월 24일 조계사에서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가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총지종 통리원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벽동사 주교 법일 정사, 총지사 서강 정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명종 타종으로 시작된 위령제는 종단 대표의 헌화와 가족 대표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의 헌화에 이어 추도사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납득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시스템을 갖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인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리사회는 이미 사람의 목숨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이어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목 스님의 집으로 치러진 천도의식은 희생영가들이 불보살님들의 가지력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참 대중들의 염불소리로 법당 안을 가득 채웠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지 면 안 내

- 2면 성남 교도복지시설 완공
- 3면 과산 수련원 중원사 준공 검사 완료
- 5면 설법·삼독에 물든 삼계를 벗어 나자 (밀인사 주교 원당 정사)
- 6면 특집-조용한 숲속에서 나를 찾는 휴가
- 7면 특집-호국안민기원 법회
- 9면 '미야바야시 쇼겐' 일한 불교교류협회 회장 원적

새로운 종풍운동

- 첫째, 벼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योग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19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 취임법회 봉행 회장에 강창일 의원, 부회장 주호영, 김영주 의원 취임



▲ 취임법회 후 동참 사부대중 기념사진

제19대 국회정각회 후반기 회장 취임법회가 7월 8일 오전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었다. 취임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

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및 주요종단 지도자와 회장에 취임하는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의 사회로 봉행된 법회는 신임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과 전임 정각준 의원의 헌화에 이어 삼

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이 이어졌다. 신임 강창일 의원은 취임사에서 "불자의 원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 바른 말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건설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며 취임의 각오를 밝혔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우리는 상대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너무나 고마운 관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각회의 역할입니다. 적극적인 불자로서의 모습으로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정치를 펴 나가기를 당부했다. 제19대 국회 정각회 후반기 임원은 회장 강창일 의원, 부회장 주호영, 김영주 의원, 간사장 이진복 의원, 간사 류지영, 임수경 의원, 감사 여상규, 신경민 의원으로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조계사=김종열 기자

대전 만보사 만다라 봉안 및 득락전 헌공 법회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친필로 축원을 써주신 「양계 만다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광배형 본존 후불 탕화」
「득락전 청동 아미타 삼존불」, 「비로자나불을 위시한 5불을 모신 득락전 원불단」 등
만보사 교도들과 도움주신 여러분의 원력으로 서원당과 득락전을 장엄하고
종단의 어른 스승님들과 교도들을 모시고 헌공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만보사 만다라 봉안 및 득락전 헌공 법회

일 시: 총기 43년 9월 23일(화) | 장 소: 대전 만보사



불교 충지종 충청·전라 교구

교회 현장의 생생한 경험 교육 강화

중앙교육원 7월 시무 일선 사원 교육



▲ 지인사 현장 시무교육

총지중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은 7월 정기 시무교육을 일선 사원에서 진행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사원에서 일어나는 교회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은 각 사원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다.

7월 21일 법천사에서는 주교 법경 정사의 ‘육자의궤염송 수업’, 7월22일 실지사에서는 주교 범우 정사의 ‘스승의 자질’, 7월 23 지인사에서는 주교 지성 정사의 ‘스승으로써의 마음가짐’, 7월 23일 밀인사에서는 주교 원당 정사의 ‘금정의 힘, 적적성성(맑고 고요한 상태)의 불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현장 교회의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에비스승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교육원=배공주기자

무더위를 이긴 어울림 문화센터 강좌 인기 8월에는 힐링 춤 강좌 개설



▲ 힐링춤 최경살 교수

불교총지중이 포교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어울림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울림은 상담과 진단 프로그램 부터 시작하여,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치유와 자연 치유, 요가, 태극권 등의 심신치유,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참가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 기초명상, IT English,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7월 9일에는 자가라 스님의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7월 19일부터 24일에는 “비움의 여행” 프로그램의 하나로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다.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에서는 주요 성지 순례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상센터인 마하시 명상센터의 명상체험도 진행하여 여행 참석자들이 큰 감동을 안고 왔다.

8월에는 유명한 춤 예술가인 최경살 선생의 힐링 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춤 워크샵과 초보자를 위한 힐링 춤 뿐 아니라, 힐링 춤 자격 과정 프로그램도 같이 개설된다.

춤 프로그램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인기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T English는 강남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청과의 협력이 잘 되면 좋은 상생효과가 기대된다.

어울림 문화센터=김종인 센터장

효강 종령 예하 성남 교도복지시설 현지지도

수행과 함께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데 중점

▲ 교도복지시설을 현장지도하는 효강 종령 예하

총기43년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핵심 사업인 교도복지시설이 개. 보수를 마치고 입주준비를 완료했다. 7월 31일 오후 총지중 효강 종령 예하는 성남 법천사 내에 위치한 교도 복지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 전반을 둘러 보고 현지 지도하였다. 법동 통리원장과 재무부장 우인 정사,

▲ 교도복지 시설 내부

법천사 주교 법경 정사의 안내로 교도 복지 시설을 둘러본 효강 종령 예하는 “총지중 창종과 더불어 진언 수행을 계속해온 노 보살, 각자님들이 마음 편히 수행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통리원 집행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집행부에 당부 하였다.

▲ 새로 정비한 건물 외관

지난 5월 26일 지진불사를 봉행하고 진행된 공사는 내. 외부 미관공사와 실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지상 3층 지하 1층 총 면적 828㎡ 규모로 총 15실 규모로 지하에는 공동목욕탕과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다. 통리원은 교도복지시설의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하는 동시에 입주를 시작할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제2회 청소년 바른인성형성 프로그램 성황리 진행중



▲ 바른인성형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

불교총지중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가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및 자살, 집단 따돌림, 갈취, 탈선 등을 방지하고, 흡연, 음주, 게임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만다라청소년 능력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병폐를 유발하는 원인이 청소년들의 내적 상처나 갈등, 분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함으로써 이들이 충실한 학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금년 4월부터 중, 고등학교 9개 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불교명상과 통합예술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소통을 경험한 학생들과 이들의 변화를 지켜 보면서 해당 학교 측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와는 달리 시행 주체인 총지중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방학기간에는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 속 명상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지는 소단위별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2학기 부터는 중독예방교육으로 술, 담배, 게임 등의 중독에 관한 강의가 서울 시내 10개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을 책임지고

있는 화령 정사(불교총지중 교육원장)는 ‘불완전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소통을 통해 상처의 근원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여 새로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불교적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계발원 간사인 배공주 교무에 의하면 ‘이들 사업의 원만한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종단 내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종단 홍보와 더불어 종단 내의 노하우 축적으로 향후 총지중 자체의 독자적인 청소년 선도와 캠프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지중보 창간 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불교총지중 통리원
- 발행인 : 구법등 | 편집인 : 구법등 | 편집장 : 김종열
- 편집국 (02)552-1080 | 팩스 (02)552-1082
- 구독 및 광고 문의 (02)552-10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강순시	7/11	10,000
	무명씨	7/21	50,000
관성사	황성녀	7/2	10,000
	인선	7/21	20,000
관음사	신막심	7/11	10,000
	주옥희	6/30	50,000
국광사	대관	7/21	10,000
	대자행	7/21	10,000
기로	밀공정	7/21	10,000
	법수원	7/21	10,000
	법장화	7/21	10,000
	법지원	7/21	10,000
	불멸심	7/21	10,000
	사홍화	7/21	10,000
	상지화	7/21	10,000
	수증원	7/21	10,000
	총지화	7/21	10,000
	선도원	7/21	10,000
	해정	7/23	10,000
	법연지	7/16	10,000
단음사	정정희	7/1	5,000
	무명씨	7/10	10,000
밀인사	양정현	7/4	10,000
	양정현	7/4	10,000

벽룡사	양지현	7/4	10,000
	하명순	7/15	10,000
삼밀사	심지장	7/18	10,000
	무명씨	7/2	10,000
수인사	정순득	7/14	10,000
	원봉	7/21	10,000
승천사	지선행	7/21	10,000
	이순옥	7/3	10,000
실보사	이순옥	7/10	10,000
	정경자	6/26	10,000
실지사	송우섭	7/2	10,000
	송우섭	7/2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6/26	30,000
	최복란	6/27	10,000
	서선숙	6/28	10,000
	구미자	6/30	10,000
	김지연	7/26	10,000
	김지영	7/26	10,000
	천소영	7/14	10,000
	이준동	7/26	10,000
지인사	허성동	7/16	30,000
	송효제	7/21	10,000
	지성	7/21	10,000
	지성	7/21	10,000

초록어린이집			
오현주	6/30	10,000	
	이은주	6/30	10,000
박주원	7/1	10,000	
	이지은	7/8	10,000
무명씨	7/25	10,000	
	황화성	7/26	30,000
현진영	7/26	10,000	
	법등	7/2	50,000
이인성	7/15	30,000	
	정은선	7/21	10,000
최영래	7/21	10,000	
	강동화	6/26	10,000
홍국사	지정	7/21	20,000
	지정	7/21	20,000
사원명무기재			
원정언	7/3	20,000	
	정난채	7/3	10,000
박종순	7/8	5,000	
	정종호	7/16	10,000
김갑선	7/21	10,000	
	김갑선	7/21	10,000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월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총지종 괴산수련원 준공허가 완료

장·단기 집중수행 및 다양한 불교 연수프로그램 운영 가능



▲ 괴산수련원 중원사 전경



▲ 중원사 본존



▲ 중원사 1층 개인 수행 정진 공간



▲ 수련원 숙소동

불교총지종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괴산수련원 중원사가 7월 11일 괴산군청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았다. 총기42년 4월 11일 지진불사를 시작으로 총 3개동 (서원당, 사택, 숙소동)을 신축하고, 공양간 1개동은 개축했다.

서원당은 건축면적 51평으로 전통 팔각지붕형식의 건물로 내부는 용골을 중심으로 맛배형식의 천정으로 건축되었다. 서원당 마당 아래에는 총 3개의 개인수행시설을 갖추고 교도들의 집중 수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숙소동은 대지면적 128평에 연면적 50평의 2층 건물로 4개의 숙소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단체 및 가족 수련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건축되었다.

사택은 단층 스래이크 구조로 부임하는 스승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 구조에 만전을 기했다. 공양간은 기존의 관리동을 개축하여 50여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로써 수련원의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

추았다.

불교총지종 괴산수련원 중원사는 스승 및 교도들의 장·단기 체류형 집중 수행프로그램, 불교 단체 및 불자 가족들을 위한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괴산=김종열 기자

종립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산사순례

7월8일 정기법회도 봉행



▲ 산사순례에 동참한 동해중 불교어머니회

종립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회장 조새미, 2학년 윤호웅 모)가 지난 6월 21일 산사 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는 승보사찰인 순천 송광사와 태고총림 선암사를 참배했다. 송광사와 선암사는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특히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으로 많은 불교문화재와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하다. 불교어머니회 회원들은 지도교사로 동

행한 탁상달 교감선생님의 자상한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몰랐던 우리사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불교어머니회 7월 정기법회가 7월 8일 종립동해중학교 동해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법선 동해중학교 정교의 집으로 열린 법회에서는 김재근 선생님의 "성격유형과 학습전략"이라는 특강도 이어졌다.

동해중=김재근 선생님

실지사 각자 신행단체 「부림회」 결성

각자님 진언 수행 공동체 결성



▲ 부림회 회장 관덕 각자 부부

서울·경인 교구 실지사(주교 법우 정사)는 각자님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신행단체 「부림회」를 결성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림회는 매월 3째 주 자성일에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고 초대회장으로 관덕 각자를 선출했다. 부림회는 각자님들의 진언수행 공동체로 사원 환경 및 시설 정비, 사원 내외 행사 및 교도 가정 경조사 지원 등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정했다.

모임의 이름인 '부림'은 대륜일자주로 문수보살의 대원으로 일체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다. 회원들은 이 진언의 참된 공덕을 실천할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삼았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관덕 각자는 총지종 창종 초기부터 염송 수행을 해온 진언행자이다. 자성일에는 부인인 무량수 보살과 아들, 딸, 손녀까지 사원을 찾아 염송 정진하는 총지종 핵심교도이다.

실지사=홍정숙 통신원

젊음으로 도전한 자전거 국토종주

정각사 이상록 보살 아들 이동락 군 종주 성공



▲ 국토종주에 성공한 이동락군과 친구들

정각사 이상록 보살 아들 이동락 군이 김포 아라뱃길에서 출발하여 부산까지 자전거 국토 종주에 성공했다.

대학생 이동락 군은 방학을 맞아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6월25일 김포 아라 서해 갯문에서 출발하여 양평, 여주, 문경, 상주, 고령, 양산을 거쳐 총 633Km를 달려 6월 30일 낙동강 하구둑에 도착했다.

이동락 군은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담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확인하고 쌓아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며 종주 소감을 밝혔다.

이동락 군은 각 지점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인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국토 종주 인증서와 메달을 받았다.

김종열 기자

밀인사 신임 신정회 간부 취임

회장에 원행지(박수빈) 보살,
총무에 무량지(김옥인) 보살



▲ 신임 회장 원행지, 총무 무량지 보살

밀인사 신정회는 7월 27일 모임을 갖고 신임 신정회장에 원행지(박수빈) 보살, 총무에 무량지(김옥인) 보살이 취임했다.

이번에 신정회장에 취임한 원행지(박수빈) 보살은 "교도들과 함께 보다 활기찬 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총무 무량지(김옥인) 보살은 "회장 보살님을 잘 보필하고, 사원의 작은 일까지 행기는 총무가 되겠습니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밀인사=통신원 김옥임

포항 수인사

황보기문 각자 입적

49재는 9월 14일 부산 정각사



▲ 故 황보기문 각자

포항 수인사 교도 황보기문 각자가 7월 28일 새벽 입적했다. 세수 85세(경오생)

이다. 포항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법등 통리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조문했다.

황보기문 각자는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염송정진을 수행을 계속해온 원로 교도로, 전통 문화에 대한 해박한 소견으로 경로법회 때는 전통 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정각사 주교 록경 정사의 부친으로 대를 이어 총지종의 종지 종풍 받들었다. 49재는 9월 14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부산연등축제 평가 및 회향 보고회 봉행

총지종 부산·경남 교구 「원력상」 수상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 범어사 주지)는 7월 16일 코모도 호텔에서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 연등축제 평가 및 회향보고회를 가졌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스님은 총평 및 회향사에서 "이번 연등축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연등 문화제와 전통창작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찾아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아픔을 달래 주었다. 각 사찰과 수행단체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날 평가 및 회향보고회에서는 연등

문화제 중심으로 진행된 부산연등 축제에 동참한 중단, 사찰, 단체들에게 정진상, 원력상, 보현상 등을 시상했다.

정진상에는 범어사, 삼광사, 진각종 부산교구청, 원력상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관음사, 총지종 부산교구, 보현상에는 흥법사, 미타선원, 문수상에는 국제포교사단 부산지부, 특별상에는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부산진 시니어클럽 등이 수상했다.

부산 코모도 호텔=김윤경 통신원

통신원 소식

정각사 교도 소리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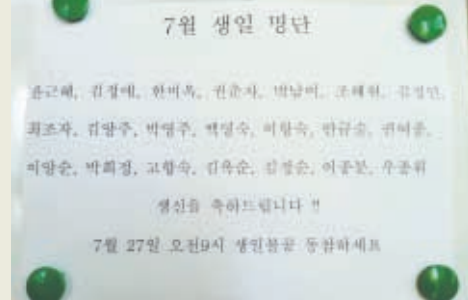
정각사 신정회(회장 류길자)는 사원에 교도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 할 수 있는 소리함을 설치했다.

기존 우체통으로 쓰던 것을 보수하여 만든 '소리함'은 서원당 계단과 공양간 입구, 두 군데에 설치했다.

신정회는 그동안 사원 발전과 교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고민하였다. 보다 많은 교도들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리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정각사 마당에 설치된 소리함



▲ 정각사 게시판에 공지된 생일자 명단

정각사 생일자 불공 봉행

정각사 신정회(회장 류길자)는 매월 마지막 주 자성일에 생일을 맞은 교도들의 생일불공을 합동으로 봉행기로 했다. 정각사 신정회 류길자 회장은 교도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불공 동참을 위한 방안으로 생일을 맞은 교도들의 불공 축원을 스승들에게 건의했다.

7월 29일 오전 9시에 정각사 주교 록경 정사의 집으로 처음 봉행된 생일자 생일 축원 불공이 봉행되었다. 동참 교도들은 윤근혜 외 20명의 건강과 만사 형통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했다.

정각사=통신원 김정애, 한미옥, 김윤경, 이상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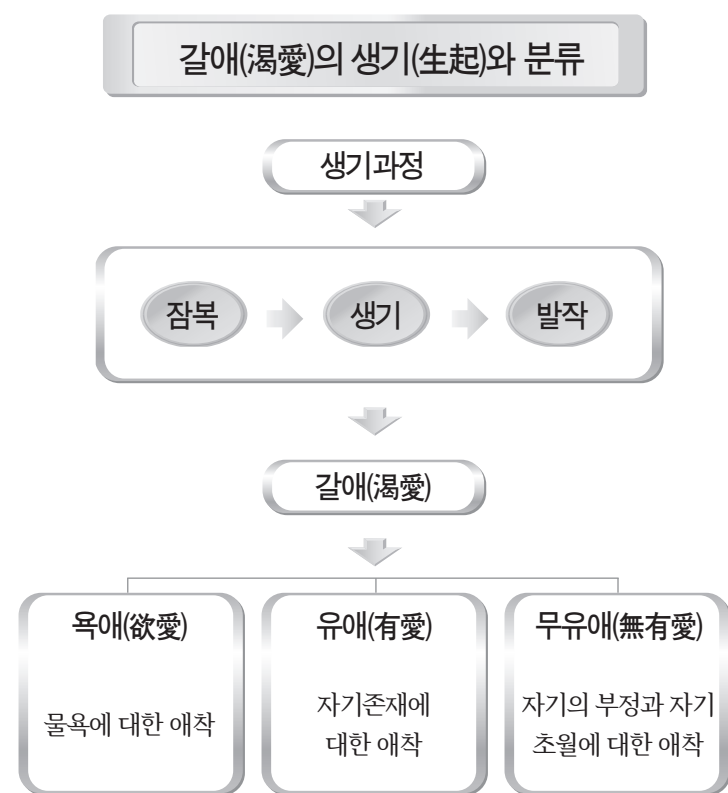
불교의 선정 30 사념처 수행

법념처(5)

관사성제(觀四聖諦)-집성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괴로움을 없앤다
갈애는 괴로움의 원천

화 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사성제 가운데에서 집성제는 고(苦)의 원인에 대한 성찰이다.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일러 집성제라 하는가? 갈애는 (괴로움의 세계로 윤회하게 하는) 재생(再生)을 가져 오며 즐거움(喜)과 탐냄을 함께 갖추어 이르는 곳마다 애락을 추구한다. 즉, 욕애(欲愛)와 유애(有愛)와 무유애(無有愛)가 그것이다.”

집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것으로서 갈애(渴愛)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윤회하게 만들며 좋아하고 탐내는 것과 함께 괴로움을 유발하는 원인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갈애에는 욕애와 욕애와 무유애의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이다. 갈애라는 것은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듯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으로 올라와 물을 안타깝게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집착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갈애를 업력을 일으키는 동인(動因)으로 본다. 중생들이 갈애가 없다면 윤회할 일도 없다. 예를 들면 씨앗이 하나 있다고 치면 그 안에는 적당한 습도가 있어 그것이 땅에 묻히면 싹이 난다. 이 경우에 업력은 마치 씨앗과 같고 갈애는 씨앗 속의 습도와 같아서 업력으로 하여금 오온이 생겨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오온은 곧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 만약 갈애가 없으면 업력은 오온을 생겨나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원리가 부처님께서 갈애가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신 이유이다.

갈애는 또한 희(喜)와 탐(貪)을 함께 갖춘다고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갈애가 곧 희와 탐이라고 할 수 있다. 희와 탐은 좋아하고 탐내는 것이다. 이것이 도처에서 애락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중생은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 반드시 감각의 즐거움에 탐닉하고 생명에 애착을 가진다. 중생은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전제하며 자기의 삶에 집착하게 된다.

갈애에는 욕애와 유애, 무유애의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욕애는 감각적 욕망이며 유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애착이다. 무유애는 자기 부정 혹은 자기 초월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 욕애는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 등으로서 외부의 것에 탐착하는 것이다. 즉, 바깥의 경계에 탐닉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색애(色愛), 성애(聲愛), 향애(香愛), 미애(味愛), 촉애(觸愛)와 법애(法愛)의 6가지가 있다.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보면 우리는 바로 이 욕애의 덩어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이 거의 모두가 이 6가지 욕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소리를 듣고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여기에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존감이나 명예심 등으로 뽕뽕 묻혀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특히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탐욕스럽게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줄 모르고 오로지 바깥의 대상에 대하여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깨닫지 못한 모든 중생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욕애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유애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갈애로서 자신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탐착하는 것이다. 유애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욕계에 대한 갈애이다. 욕계에 태어난 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탐착하며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상견(常見:자기의 실체가 있어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갈애로서 중생에게 어떤 실체가 있어 다음 생으로 연속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 실체와 본아가 합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갈애와 탐착이다. 네 번째는 선나(禪那)에 대한 탐착이다. 이러한 갈애는 모두 자기 자신의 존재와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윤회를 면하지 못하게 한다.

무유애는 단견(短見: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져버리고 그 만이라는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서 단견을 지닌 사람은 사후에는 윤회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죽어 없어짐으로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욕심이다. 강한 자기 부정에 의하여 자살을 바라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갈애가 일어나는 것을 생기(生起)라고 하며 갈애가 마음 속에 잠복하여 있는 것을 주착(住著)이라고 한다. 번뇌가 일어나는 데에는 잠복기와 생기기, 그리고 발작기의 3단계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지만 평소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서 표출된다. 예를 들면, 좋은 옷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여자에게는 있지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옷가게 앞을 지나간다가나 세일하는 광고를 보면 거기에 마음이 끌린다. 그리고는 사려는 생각이 나서 입어보거나 하고서는 무척 마음에 들지만 돈이 모자라 못하게 된다면 그 옷이 늘 눈에 아롱거릴 것이다. 살 능력은 안 되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돈을 꾸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옷을 훔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마음에 잠복해 있던 욕심이 어떤 것을 계기로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발작기이다.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나는 패턴은 항상 이런 형식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욕심이 어떻게 머무르고 일어나며 발작을 하는가를 잘 살펴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곧바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갈애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러면 갈애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불교에서는 10가지의 카테고리(十組)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매 카테고리는 6항목으로 나누어진다. 10가지 카테고리는 근조(根組), 진조(塵組), 식조(識組), 촉조(觸組), 수조(受組), 상조(想組), 사조(思組), 애조(愛組), 심조(尋組), 사조(伺組)의 10가지이며 여기에 각각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의 6항목이 들어간다.

먼저 근조(根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의 심신 가운데에서 안·이·비·설·신·의의 6근은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이것이 육내입처(六內入處)라고 하는 것으로서 통상 사람은 이 6근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돌보고 다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육내입처에 대한 집착으로 갈애를 생겨나게 하고 그것을 충족하려고 노력한다.

진조(塵組)는 색·성·향·미·촉·법의 6진이 사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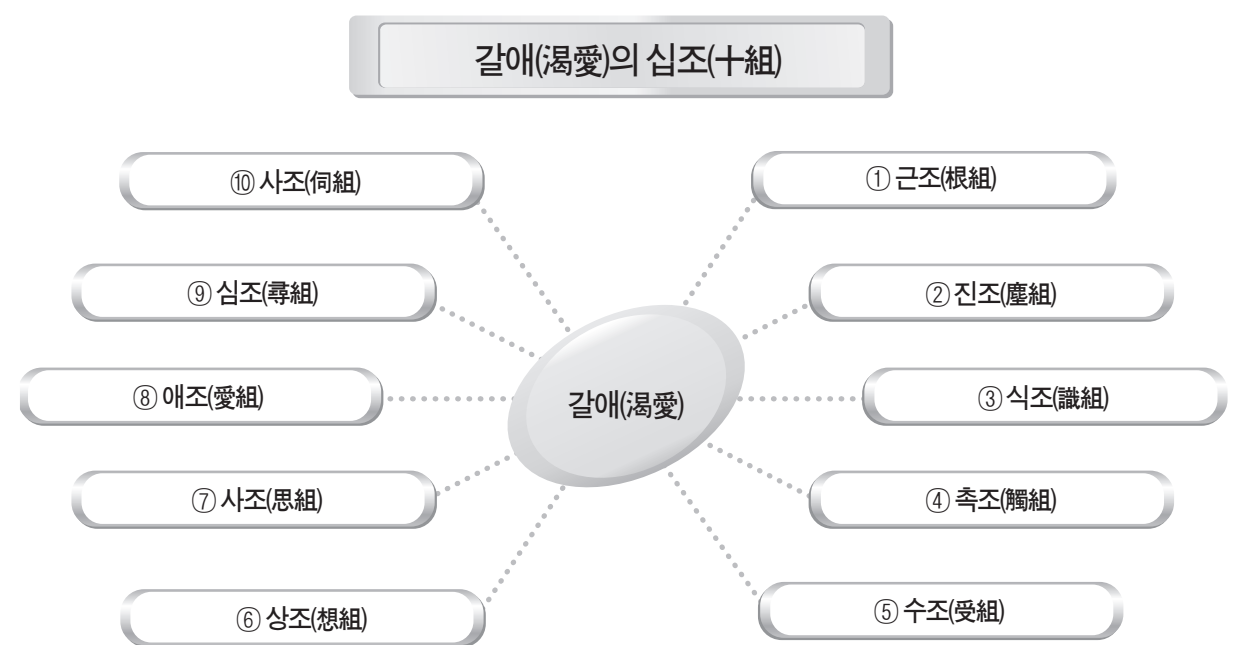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진(塵)이라고 한 것은 이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번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경(境)이라고 한다. 이것이 육외입처(六外入處)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에 대한 갈애가 마음 가운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우리가 오온을 관조할 때에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관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십이처가 곧 오온이며 이른바 색법(色法)이라는 것이다.

식조(識組)는 안·이·비·설·신·의의 6식으로서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6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마음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면 6식 또한 명확히 관조할 수 있다.

촉조(觸組)는 안·이·비·설·신·의의 6촉이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6촉은 반드시 육식을 수반하여 생기며 우리가 육식을 관조하게 되면 6촉 또한 관조할 수 있다. 강렬한 갈애는 6식과 6촉을 인으로 하여 마음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수조(受組)는 안·이·비·설·신·의의 6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가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어떤 것을 일러 6촉이 수를 낳는다고 하는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대상이 있고 그것을 눈을 통해 보며 그 순간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 그것이 촉이다. 그리고 그 촉에 이어서 좋거나 싫다는 느낌이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이다. 강렬한 갈애가 바로 이 수를 통하여 일어나고 머무른다. 이 수는 갈애가 생기고 거기에 집착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다.

상조(想組)는 색·성·향·미·촉·법에 의한 6상이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상과 식, 촉은 함께 일어나며 명법을 관조함에 있어 식 뿐만 아니라 촉, 수, 상 등도 관조해야 한다. 육식을 관조하게 되면 육상 또한 수월하게 관조할 수 있다.



사조(思組)는 색·성·향·미·촉·법에 의한 6사가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사도 또한 반드시 식과 함께 일어난다. 식, 촉, 수, 상, 사를 합하여 ‘촉오법(觸五法)’이라고 한다. 이 5가지의 명법(名法)을 관조하면 상응하는 나머지 명법도 수월하게 관조할 수 있다.

애조(愛組)는 색·성·향·미·촉·법에 의한 6애가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육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불선법(不善法)을 관조하면서 반드시 이 6애를 관조하여야 한다. 애는 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만약 탐심(貪心)을 관조할 수 있으면 6애도 수월하게 관조할 수 있다.

심조(尋組)는 색·성·향·미·촉·법에 의한 6심(尋)이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사조(伺組)는 색·성·향·미·촉·법에 의한 6사(伺)가 사람을 유혹하며 그것에 의하여 기뻐하게 하는 것으로서 갈애는 거기에서 생기고 머무른다.

심(尋)과 사(伺)는 심소(心所)에 속한다. 심(尋)은 심사(尋思)라고도 하는데 바깥의 경계에 대하여 일어나는 거친 정신작용이다. 사(伺)는 바깥의 경계에 대하여 일어나는 세

심한 분별작용이다. 식, 촉, 수, 상, 사(思)의 5가지 명법을 관조하게 되면 심(尋)과 사(伺)도 수월하게 관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상의 십조를 통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 10가지 카테고리 고리는 우리가 바깥의 경계를 대할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우리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하나하나 제거해 감으로써 괴로움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보자. 예를 들면, 과일이 몹시 먹고 싶은데 사과가 앞에 하나 놓여 있다고 치자. 안근을 통하여 바깥의 경계인 사과를 보고 이것은 사과이구나 하는 식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과를 먹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에 서 촉, 수, 애가 일어나고 이전에 먹었던 사과라던지 이 사과를 먹어도 아무 탈이 없을까, 혹은 이 사과는 누구의 것인가 등등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이 더불어 일어나는데 그것이 상(想), 사(思), 심(尋)과 사(伺) 등이다.

우리의 육근을 통하여 바깥의 경계를 대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생각을 면밀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며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애욕과 집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집성제이다.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갈애이고 그러한 갈애의 형성과정을 세밀하게 나눈 것이 이상의 10가지 카테고리이다.

깨달음은 정확한 관찰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러한 십조에 대한 분석과 관찰은 집성제를 관찰하는 데에 있어 지나치게 세분된 점도 없지 않지만 불교는 원래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한 것이다. 그저 신을 믿는다고 호호하게 관념적으로 죄가 소멸되고 복이 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작용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우리의 괴로움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관찰하여

합리적, 과학적으로 그 근원을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호호한 관념상의 추측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중에 졸 박혀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세밀한 과정을 통하여 괴로움의 근원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괴로움의 근원도 잘라버리기가 어렵다. 추상적이고 호호한 자기만족적인 혹은 자기 기만적인 행위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불교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위에서 든 철저한 관찰에 의한 수행에 의하지 않고서 그저 오래 앉아만 있었다고 깨달음이 얻어질 수는 없다. 정확한 관찰과 수행방법에 의하지 않고 깨달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에 어긋나는 터무니없는 언행을 하거나 어이없이 사소한 유혹에도 쓰러져버리는 것이다. 괴로움의 정확한 원인과 그 발생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른 치료법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集聖諦’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 상 설 법

삼독(三毒)에 물든 삼계(三界)에서 벗어나자



밀인사 주교 원당 정사

교도여러분.

하반기 49일 조상불공과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를 원만히 회향하신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의 삶을 불타는 집에 비유하여 설하신 『법화경』 제3 「비유품」에 나오는 ‘삼계화택’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큰 부자가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불이 나서 그 집이 불타게 되었다. 부자는 급히 집을 빠져 나와서 불을 피했지만, 아이들은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고 있었다.

부자는 다급한 소리로 아이들을 부르면서 불이 났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하자, 그 부자는 한 생각을 내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소의 수레와 같은 장난감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여기 있으니 나오라고 유혹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신기한 장난감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그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부자가 있는 쪽으로 나와 장난감을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러자 부자는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금은보화로 장식된 큰 흰 소 수레를 선물하였다.”

이는 『법화경』 「비유품」의 한 구절로 부자는 부처님을, 아이들은 중생을 그리고 불타는 집은 우리가 있는 삼계인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비유합니다.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소의 수레는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의 3승의 가르침을 비유하며, 금은보화로 장식된 큰 흰 소의 수레는 일불승(一佛乘)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일불승의 가르침은 일체중생들이 모두 평등하게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성불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은 바로 탐.진.치 삼독의 불이며 오욕철정의 불이며 또한 번뇌 망상의 불인 것입니다.

삼계는 거대한 불길에 타는 집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불타는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있는 철부지 아이들인 것입니다. 불타는 집안에서 아무리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찾기도 조만간 불길에 휩쓸립니다.

삼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역시 끝없이 되풀이 되는 윤회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삼계에서는 결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은 너무나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중생들이 마치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길에 타는 삼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3승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입니다.

성문승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阿羅漢)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들로 주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각승은 인연법을 깨달은 수행자를 말하는 데 스승 없이 스스로 수행한다고 해서 독각승이라고도 합니다. 보살승은 자신의 깨달음 보다는 중생제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수행자들로 보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승의 가르침은 삼계의 불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방편일 뿐입니다.

삼계화택 안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중생들에게 성불의 길을 설하여 이끌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일단 수행자들의 근기에 따라 3승법을 방편적으로 제시하여 수행의 길로 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3승의 가르침 모두가 결국에는 성불이라는 일승을 위한 선방편(先方便)이니 수행자는 3승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여 이해하고,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일체중생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자각하여, 궁극에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덕을 이루어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은 금은보화로 장식된 큰 흰 소가 끄는 수레인 일승에 올라타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불길에 타는 삼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삼계화택의 비유로써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다른 근기를 지닌 중생들을 수행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가치를 내려주어, 불법과 인연을 짓고 수행의 길로 들어 삼계화택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일승의 수레에 어서 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면, 인간의 탐심이 불러일으키는 크나큰 재앙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계화택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진언행자들은 최상승의 즉신성불의 대도인 진언염송 수행을 통해 미묘본심을 자내증하여 삼계화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 정진 하실 것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서원 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성도합시다.

데스크칼럼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을 바라보며

지금 중동의 가자지구에서는 연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치열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전쟁이다. 8월 3일 AP 통신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희생자가 1,800여명이 넘었다한다. 이중 어린이는 최소한 400명, 여성 210여명이 포함되었다. 이스라엘도 군인 64명과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 발발의 표면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서안지구(자치지구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크게 나누어 진다)에서 이스라엘 청년 3명이 납치 살해 된 사건이 기화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의 집권 정당 하마스의 소행으로 보고, 보복조치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가한다. 하마스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로켓탄으로 응전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지금 전쟁의 양상이 가자지구 사람들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가자지구는 한마디로 장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섬이다. 지중해 연안 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마주하고 있다. 면적 364.3km으로 이스라엘과의 경계는 높이 8m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집트 쪽도 철책으로 막혔다. 지중해는 이스라엘 해군이

해상을 장악하여 봉쇄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보다 약간 큰 면적에 인구는 약160만 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이 난민촌에서 생활하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회교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하마스라는 정당이 통치하고 있다.

물론 이지역의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서안지구의 통치당인 파타당과는 정치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이유는 회교 원리주의의 정당 하마스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에는 대외적인 교역의 소통로가 이미 봉쇄된 상황이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집트와의 교역을 위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생필품을 얻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 땅굴을 이스라엘 후방으로 연결하여 공격의 통로로 삼는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통해 땅굴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땅굴의 출입구가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학교, 민간인 시설들을 무차별 폭격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간방패로 땅굴을 숨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마스의 주요 공격 무기는 로켓탄이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돔으로 철통같은 방어를 하고 드론이라는 무인기를 이용해 폭격을 가한다. 이는 돌을 던 사람과 기관포를 든 사람과의 싸움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전쟁인 것 이다. 전쟁의 명분이야 어떠한 전쟁의 기본은 군인과 군인과의 전투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소중한 인간의 목숨 대신 할 수 없다. 유엔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반 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자유의 수호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미루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정치권과 은행, 언론 등은 거의 대부분 유대계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국익에 반하는 정책과 논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종교적 신념으로 일어난 전쟁인 것이다. 자신들이 박해 받은 역사를 그대로 팔레스타인들에게 다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만행을 직접 체험한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히고, 죽음으로

내 몰리는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자에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유로 미사일의 불바다에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들은 홀로고스트 당시의 유대인이 느꼈던 공포를 지금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대교, 기독교, 회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동일하다. 어찌 보면 형제들이다. 서로가 하나님의 적자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는그쳐야 한다. 자기들의 안위와 종교적 우위를 위해 더 이상 무고한 목숨을 해쳐서는 안된다. 제발 사랑으로, 자비로 서로를 이해하기 바란다.

충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는 종조법설집에서 “은혜(恩惠)는 평생으로 버리지 말고 수원(淸源)은 일시라도 가지지 말라. 수원(淸源)은 수원(淸源)으로 풀리지 않고 은혜를 생각할 때 풀이지리라.”(종조법설집 p140 제2장 수행. 15.선지식과 선행.(나)선행②)는 법어를 남기셨다. 서로의 감정으로 일어난 원망과 복수는 또 다른 원망과 복수를 낳는다. 그러나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배려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작은 출발이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팔레스타인들에게 원정 대성사의 법문을 전하고 싶다. 이제 한발씩 물러나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생명의 존중을 가진다면, 원망은 고마움으로 변할 것이다. 이는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끈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다. 서로 무기를 버리고 하루 속히 평온을 되찾기를 바란다.

충지중보 편집장 김종열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운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곁고루 건져주시네”



화령 편역 | 불교충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조용한 숲속에서 나를 찾는 휴가 「국립자연휴양림」

여름이다. 지구 온난화는 예전의 여름과는 달리 강한 햇살을 내리고 있다. 1년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어 동남아 유명 관광지는 한국인들로 가득하다. 해변과 대형 물놀이 공원도 마찬가지다. 불자로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조용한 곳은 없을까? 편집자는 자연 휴양림을 권한다. 현재 전국에 국립자연휴양림이 38개가 운영 중이다. 일단은 정부가 운영하니 바가지요금 걱정 없고,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져 가족 캠핑 및 휴양지로 적합하다. 조용한 휴가를 계획한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찾아보기 바란다. 텐트등 기본 장비도 대여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몸만 가도 된다. (편집자 주)

국립 황정산 자연휴양림(충북 단양) 캠핑장, 황정산 산행, 단양 8경을 함께하는 휴양림



휴양림내 울창한 참나무숲 아래 계곡이 흘러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오토캠핑장과 일반야영장은 벌써부터 캠퍼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녹색의 숲과 잘 어울려 동화 속 마을과 같은 산림휴양시설은 아늑함을 자랑한다.

옥황상제의 정원으로 불리는 황정산 산행으로 길게 이어진 산책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휴양림 내에서도 탁 트인 배경으로 사진촬영하기 좋은 장소도 있어 재미를 더 해준다.

한편, 단양팔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 석문, 사인암을 비롯하여 월악산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청정계곡인 선암계곡과 단양 읍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양방산 전망대와 페러글라이딩장, 단양구경시장 등도 휴양림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국립 신불산 폭포 자연휴양림(울산 울주) 간월재 억새평원, 파래소 폭포가 있는 풍광



고현산, 가자산, 간월산, 운문산 등과 함께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은 간월재에 대면적의 억새평원이 있어 가을철 멋진 경관을 자랑하며, 하단부에는 명주실을 한 타래 놓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설의 파래소 폭포가 있다.

또한 대부분 활엽수림으로 이뤄져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휴양림 주변에는 국내 3대 사찰중 하나인 통도사와 비구니 사찰인 석남사 그리고 자수정동굴나라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으며, 인근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과 교통여건이 좋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국립 중미산 자연휴양림(경기 양평) 중미산에서 올 여름 무더위 끝.



중미산자연휴양림은 곧게 뻗은 낙엽송, 잣나무 숲에서 나침반으로 목표지점을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과 시원한 계곡 옆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산악레포츠와 캠핑을 즐기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손꼽힌다.

또한 인근에 천연된 은행나무가 일품인 '용문사',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등 주변 관광지원도 풍부하다. 용산에서 용문간 중앙선 전철이 개통돼 운전대를 놓고 열차를 이용해 당일형으로 휴양림을 즐기기에 좋다.

국립 미천골 자연휴양림(강원 양양) 세상 제일 깊은 곳에서 힐링



'미천(米川)골'이란 이름은 신라 사찰인 선림원에서 승려들을 위해 쌀 씻는 물이 계곡을 하얗게 만들었다는 전설에 의해 붙여졌다. 휴양림 내에는 선림원지와 삼층석탑, 석등, 부도, 비석 등 국가지정 보물이 있어 역사교육의 산실이 된다.

7km가 넘는 깊은 계곡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며, 혼효림의 숲은 원시의 자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최고의 힐링 장소이다. 또한 깊은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물바라기 약수와 상적폭포는 신비스러움을 더한다.

주변 낙산사, 하조대, 오대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이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양양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원문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충기43년 호국안민기원법회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과 하반기 49일 조상불공 원만 회향 발원”

서울·경인 교구 (교구장 범우 정사)



서울·경인 교구(교구장 범우 정사)는 7월 16일 오후 1시 중남 부여 청소년수련관에서 호국안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일 벽룡사 주교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는 훈향정공에 이어 통리원장 법등 정사의 효강 종령 예하 법어 대독, 서울·경인 교구장 범우 정사의 봉행사, 신정회 서울·경인 김은숙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경인 교구장 범우 정사의 봉행사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하지 못한 부분은 방생을 통해 선한 업으로 바꾸어 나가고, 회향하는 마음 가운데는 일체 중생을 살피는 자비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며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신정회 서울·경인 김은숙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에서 “오늘, 이 법회에서 못 생명들을 수없이 해한 죄를 깊이 참회 드리옵니. 우리 무명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법의 지혜와 큰 자비를 주시옵소서.”라며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살생의 죄업을 깊이 참회하기를 서원했다.

취재=총지사 이인성 통신원



부산·경남 교구 (교구장 시정 정사)



부산·경남 교구(교구장 시정 정사)는 7월 16일 전남 고흥 실내체육관에서 호국안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록경 정사(정각사 주교)의 집공과 법신 정사(동해중학교 정교)의 사회로 봉행된 법회는 훈향정공, 종령 법어 대독, 교구장 인사말, 신정회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 자비의 쌀 기증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정회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의 발원문 봉독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사생의중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깊이 새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전 서원합니다.”며 생명 사랑의 간절한 바람을 서원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부산·경남 교구 사원에서 모은 자비의 쌀 500Kg을 전남 고흥군청 주민복지센터에 기증했다. 기증식은 신정회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이 고흥군 주민복지센터 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 기증은 고흥군 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이 바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방편이라는 의견으로 시행되었다.

취재=정각사 김정애, 이상록 통신원



대구·경북 교구 (교구장 안성 정사)



대구·경북 교구(교구장 안성 정사)는 7월 16일 충북 제천 의림지 공원에서 호국안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천사 주교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과 하반기 49일 불공 원만회향을 서원했다. 교구장 안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동참하신 교도 분들의 엄장소멸과 복덕 증장을 함께 이루시기를 발원하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지심으로 서원합니다.”며 법회를 통해 49일간의 정진의 결과를 얻기를 서원했다. 법회 후에는 준비한 도시락으로 공양을 나누고, 단체 율놀이를 통해 교도 간 우의를 다졌다.

취재=단음사 권순복 통신원



충청·전라 교구 (교구장 환수원 전수)



충청·전라 교구(교구장 환수원 전수)는 7월 16일 오전 11시 부여 청소년수련관에서 호국안민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신정회 충청·전라 민순분 지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오늘우리 교도들의 간절한 서원으로 모든 중생들이 고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불보살님들의 가지력으로 굽어 살피옵소서.”라며 법회 참석대중의 마음을 담아 지심으로 발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각 사원별로 중요 전통 사찰을 참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취재=만보사 통신원 유복순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6)

만다라의 존상(尊像) ③ ‘불(佛)’



▲ 부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정성육계상’
(일본 흥복사의 미륵여래좌상)

지난 호에서 불상(佛像)의 각부 명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불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부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32상(相) 80종호(種好)’가 있다. 32상(相)은 서른 두 가지의 모습이란 뜻으로 32대인상(大人相)이라고 한다. 부처님에게 특징지어지는 32가지의 신체적 모습을 말하는데, 이를 32가지의 상호(相好)라 하여 32상(相)이라 한다.

부처님의 특징을
삼십이상(三十二相)과
팔십종호(八十種好)로 표현

삼십이상 -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
팔십종호 - 부처적인 특징을 말함

전륜성왕의 특징을 불교에서 수용,
경전이나 자료마다 달리 표현...

이 32상은 경전이나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원래 인도에서 이상적인 왕이라 불리어지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갖추고 있던 특징들을 불교에서 수용하여 부처님의 몸의 형상에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부처적인 특징을 일러서 80종호라 한다. 32상과 80종호를 합쳐서 ‘상호(相好)’라고 한다. 그래서 흔히 ‘부처님의 상호가 어떠한가’라고 말할 때, 그 상호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과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32상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정성육계상(頂成肉髻相)’이다. 머리 꼭대기에 상투를 올린 모양이다. 상투모양을 육계(肉髻)라 하는데, 머리 꼭대기에 머리를 틀어 올린 것처럼 살이 한 단 더 올라 있는 모양이다. 두 번째는 ‘신모우선상(身毛右旋相)’이다. 신체의 모든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액평면상(額平面相)’이다. 앞 이마가 평평하고 반듯한 모습이다. 넷째, 미간백호상(眉間白毫相)이다. 미간에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있고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 다섯째, ‘안색여간청상(眼色如紺靑相)’이다. 눈동자가 감청색이고 속눈썹이 암소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다. 여섯째, 구사십치상(具四十齒相)이다. 치아가 40개인데 40개의 이가 깨끗하고 희며 가지런하다. 일곱째

셋은 범음성상(梵音聲相)이다. 음성이 낭랑하다. 열 넷은 견박원만상(肩膊圓滿相)이다. 어깨 끝이 풍만하고 둥근 모습이다. 열 다섯은 칠처충만상(七處充滿相)이다. 몸의 일곱 군데가 유연하고 충만하다. 그 일곱 군데란 양손·양발·양어깨·머리다. 열 여섯은 양액만상(兩腋滿相)이다. 두 겨드랑이 아래의 살이 원만하여 꿰이거나 들어간 곳이 없다. 열 일곱은 신진금색상(身眞金色相)이다.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 마치 황금과 같다. 그래서 불상을 조성할 때 황금색으로 도금한다. 열 여덟은 입수미슬상(立手摩膝相)이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손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길다. 이는 멀리 있는 중생들까지도 모두 구제한다는 의미다. 열 아홉은 신여사자상(身如獅子相)이다. 상반신이 사자의 모습과 같이 위엄있고 당당하다는 것을



▲ 부처님의 특징 ‘신진금색상(身眞金色相)’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석가모니불)

치아가 고르고 평평하며, 여덟째 치아가 벌어지지 않고 치아 사이에 틈이 없이 촘촘하다.

이 둘을 합쳐서 치제평밀상(齒齊平密相)이라 한다. 아홉은 아치선백유광명상(牙齒鮮白有光明相)이다. 이가 하얗고 깨끗함을 나타낸다. 열은 득최상미상(得最上味相)이다. 맛을 보는 감각이 최상이다.

열 하나는 사자협거상(獅子頻拒相)이다. 턱뼈가 사자와 같다. 열 둘은 광장설상(廣長舌相)이다. 혀가 길고 좁다. 열

나타낸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獅子吼)라 하고, 설법하는 자리를 사자좌(獅子座)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스물은 신분원만상(身分圓滿相)이다. 신체가 넓고 둥글다.

스물 하나는 신모우선상(身毛右旋相)이다. 몸과 머리의 모발 하나 하나가 모두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 열 둘은 신모상미상(身毛上靡相)이다. 신체의 털이 모두 위를 향해 자란다.

열 셋은 마왕은장상(馬王隱藏相)이다. 남근(男根)이 몸의



▲ 부처님의 특징 ‘천복륜상(千輪輪相)’
영천 만불사의 청동와불열반상 (만불사 제공)

내부에 감추어져 있다. 위대하신 어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마치 어릴 적에 선생님을 화장실에 안가는 존재라 여겼던 사고와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스물 넷은 납적다리가 둥글다. 스물 다섯은 족질단후상(足趺端厚相)이다.

발의 복사뼈가 노출되어 있고 발등이 높고 유연하다. 스물 여섯은 수족세연상(手足細軟相)이다. 손발이 가늘고 유연하다. 스물 일곱은 수족망만상(手足網漫相)이다. 손발에 망이 감겨 있고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스물 여덟은 수지섬장상(手指纖長相)이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다. 스물 아홉은 천복륜상(千輪輪相)이다. 손발에 수레바퀴와 같은 모양의 고리가 있다. 서른은 족안평상(足安平相)이다. 발바닥이 평만하여 땅에 안주해 있다.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아 있지 않은 부분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오로지 중생을 구제코자 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서른 하나는 족근원장상(足跟圓長相)이다. 발꿈치가 넓고 길며 둥글다. 서른 둘은 천여록왕상(踰如鹿王相)이다. 종아리가 사슴왕과 같이 섬세하며 원만하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특징을 여러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삼십이상을 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거나 명칭만을 언급한 경우도 있다. 『장아함경』 『승전왕반야경』 『금강경』 『선나경』 『법화경』 『정법화경』 『관무량수경』 『유마경』 『관정경』 『대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 『유부율잡사』 등에서 삼십이상을 언급하고 있다.

삼십이상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라면 팔십종호는 부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삼십이상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팔십종호는 다음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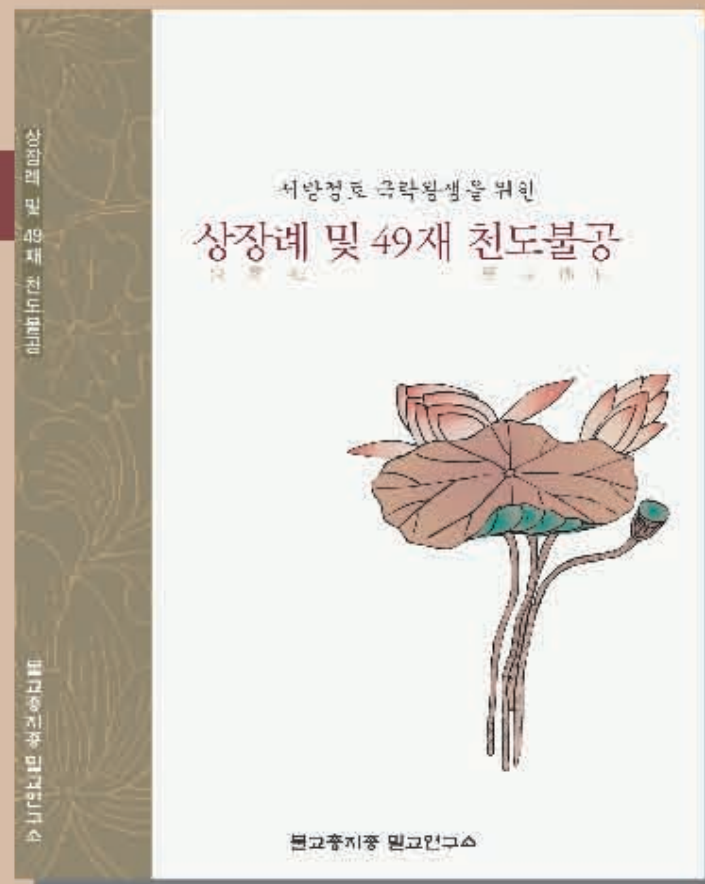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충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2014년도 제2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대회 11월 19일
‘도라산’ 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



▲ 2014년도 제 2차 종단협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이하 종단협)는 7월 17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

일정을 논의했다.

종단협은 제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를 11월 18일~20일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불교사상에서의 평화의 실천’을 주제로 열 예정이다.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 변경의 건, 회원종단 현황 파악의 건, 임원(사무 총장, 감사) 추천 및 선출의 건, 회원종단 징계의 건,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보고의 건을 논의하였다.

임원 추천 및 선출의 건은 올 11월 한중일 17차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예정되어 현 사무총장 홍파 스님이 당분간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내년 2월 총회에서 재 논의기로 했다. 또 홍파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위원회를 꾸려 소속 종단의 현황을 파악기로 했다.

한편 종단협은 이사회에 앞서 청계천 등전시회 현장에서 세월호 노란리본달기 행사에 자원봉사를 한 향기소리불자회(대표 장덕수)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정혜원 전국불교합장단연합회장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종단협=사회부김태원 교무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 원적

2003년부터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으로 활동



▲ 지난6월 35차 한일교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미야바야시 스님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의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이 7월 10일

오전 8시 43분 일본 가마쿠라 정도종 대본산 광명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김종열 기자

쇼겐 스님은 2003년 제24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부터 회장에 취임하여 양국의 불교문화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 지난 6월 큐슈슈우에서 열린 제 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대회장을 맡아 “일본 불교문화의 원류인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말했다. 또한 제임 중 여주 신륵사에 세계평화 기원탑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등 양국의 불교와 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가족들이 주관하는 「밀장」 고별식은 7월 17일 오후6시, 영결식은 7월 18일 오전 11시에 봉행되고 가마쿠라 정도종 대본산 광명사에서 봉행 예정이다. 공식적인 본 장례의식은 아직 미정이다.

조계종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 개최

대상 개인부 운문사 승가대학 보견스님, 대상 단체부 청암사승가대학 수상



▲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 시연대회

7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웅)이 주최한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 시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인염불 시연대회에서는 개인부 대상에 운문사 승가대학 보견스님이 단체부 대상에는 청암사승가대학이 수상했다.

이날 참가는 개인부에서 17개 교육기관의 학인스님들이 참가하고, 단체부는 9개 교육기관에서 12개 팀을 구성하여

학인스님들이 참여해 불꽃 튀는 경쟁 속에 치러졌다.

격려 발언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 시연대회는 사실상 염불의 일상화,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법석(法席)과 다름이 없다”며 “증일아함 역년품에 ‘염불은 거닐 때도 머물 때도 닦아야 하며,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염불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자승스님은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여기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생활화하여 몸과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인염불시연대회’에서 각 팀들의 시연이 끝나고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은 대회 총평에서 “염불은 불교문화의 꽃이다.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염불이다”며 “오늘 염불대회는 옛것과 새로운 창조가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다. 앞으로 염불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염불을 한글화해서 사부대중이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1회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 개인부 대상에 운문사 승가대학 보견스님, 특별상에 중앙승가대학교 보문스님/ 동학사승가대학에 지용스님, 최우수상에 청암사승가대학 고우스님, 송광사승가대학 해공스님이 우수상에 봉명사승가대학 보인스님, 청암사승가대학 혜강스님, 수덕사승가대학 대경스님이 원력상에 해인사승가대학 현각스님,

동국대학교(백성원) 선호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능호스님, 통도사승가대학 중본스님이 수상했다.

이어, 단체부 대상에 청암사승가대학, 최우수상에 운문사승가대학, 우수상에 동학사승가대학과 통도사승가대학이 원력상에는 봉명사승가대학/ 동국대학교(석림원)가 수상했다.

천태종 재가불자 하안거 입재

천태종은 7월 3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중정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총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회 갑오년 재가불자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날부터 안거에 든 재가불자들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천태종 사찰에서 한 달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을 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하안거 해제식은 8월 30일 오후 10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된다.

진각복지재단 시설장 대상 ‘제2기 수행연수’



▲ 진각종 제2기 시설장 수행연수

진각종 교육원(교육원장 경당 정사)은 7월 1, 2일 양일간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장을 대상으로 ‘진기 68년 제 2기 수행연수’를 열었다.

김상민 진각복지재단 법인사무처장 겸 진각노인요양센터 관장, 최돈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장, 이주목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등 20명의 시설장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안산심인당 주교 보성 정사의 지도로 ‘자애명상’, 교육원장 경당 정사의 ‘수행법

강의 및 실습’, 도안심인당 주교 도향 정사의 ‘자기발견의 시간’, 명선심인당 교화스승 심정도 전수의 ‘다도 및 다례의 시간’, 경전심인당 주교 법정 정사의 ‘회사법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행연수 참가자는 “진각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는데 회사와 염송이라는 수행방편을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진각종 선교도 전체가 체험하는 연수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격려사를 통해 “살면서 종교를 잘 활용하면 삶에 보탬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라며 “진각종 산하시설 시설장인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진각종을 제대로 배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충지종보 www.chongjinews.com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충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958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보물 제990호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尙州 南長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남장사 (남장동)
시대: 조선시대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사 보광전에 모셔진 철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지금은 불신만 남아있다.

얼굴은 단아하며 어깨에 닿을 듯 긴 귀는 목에 3줄로 새겨진 삼도(三道)와 잘 조화를 이루어 위엄을 자아낸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부드럽게 흘러내려 양쪽 무릎을 덮고 있는데, 주름은 팔과 다리의 끝부분에만 나타났을 뿐 대담하게 생략하고 단순화시켰다. 손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상과 비교하여 손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엄숙한 얼굴 표정, 차마를 묶은 띠매듭, 왼쪽 어깨에 드리워진 U자형 옷자락, 단아한 얼굴, 장대한 체구 등은 조선 초기의 불상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조선 철불상의 귀중한 예로 높이 평가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 편 369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전삭수(絹索手)진언



옴 기리나라 모나라 흠 바탁

만약 여러 가지의 불안에서 안온함을 구하려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총지중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100% 국내산 친환경 아로니아 (블랙 초코베리)

최상품
1kg 15,000원
무료배송

성분 및 효능

●시력개선 효과 ●편연력, 기억력 강화 ●혈관질환 예방과 개선 ●노화방지, 다이어트 효과

지구상 현존하는 과수 중 안토시아닌 성분 (블루베리의 4배, 크린베리의 10배,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 심혈관(동맥경화), 뇌신경, 각종 암, 당뇨, 위장질환, 신경질환, 시력장애, 비만, 불임, 류마티스, 강장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 용 방 법

- 생과로 먹을 시에는 하루 20~30알 내외로 먹어주면 좋다.
- 요구르트나 우유 또는 꿀을 첨가해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다.
- 분말로 드실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나 아이스크림 등 음식 먹을 때 뿌려 먹으면 된다.
- 원액을 마실 경우 30~50ml 를 매 식사 20~30분 전에 물에 타서 마시기를 권장한다.



영화에서 불교보기 <35>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제멋대로' 죽음에 대한 담론 <엘리펀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은 <열반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옛날 인도 어떤 왕이 장님 여섯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아를 만진 장님은 무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하고, 귀를 만졌던 장님은 곡식을 까를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절구공이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평상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배를 만진 이는 장독같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꼬리를 만진 이는 굵은 밧줄 같이 생겼다고 외쳤습니다.

다들 자신이 만진 것을 코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님으로서 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유추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장님으로서 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엘리펀트>(미국, 2004)는 위의 우 화에서 제목을 빌어 왔습니다. 영화는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 었던 사건, 1999년 컬럼바인 고교의 총기난사 사건을 소재로 했 습니다. 앞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블링 포 컬럼바인>에서 다큐 멘터리 형식을 통해서 컬럼바인 총기사건의 맨얼굴을 보여줬다 면 구스반산트 감독은 이 사건을 소재로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우화에서 왕이 여섯 명의 장님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 에 대해서 말하게 하였던 것처럼 영화에서는 12명의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음의 징후와 이유를 찾습니다. 영화는 알렉스와 에릭이라는 왕따 소년들이 총기로 무장한 체 학교로 들어와 무 차별 폭력을 행사하기 전의 16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2명과 교사 한 명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 16분을 통해 죽 음의 예측 가능성이나 필연성 등을 찾아내고자 했으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도 결코 코끼리를 몰랐던 것처럼 감독 또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간 인식 밖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영화는 맑은 가을 하늘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쪽빛 하늘엔 하얀 구름이 흘러갑니다. 오묘다 흩어졌다, 모양을 바꿔 가며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오고 하늘은 검은 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이 찾아오고,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한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하늘은 쪽빛이고, 양털구름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오프닝은 꽤 길었습니다. 분명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이 실 려 있는 시퀀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소녀 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채 지워지기도 전에 소녀는 죽기 때문입 니다. 오프닝 다음으로 영화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통테이 크와 '들고 찍기'로 촬영한 아이들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집 요하고 불안하게 보입니다. 뒷모습과 함께 베토벤의 <월광소나 타>와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음악이 흐릅니다. 운동장을 가 로 질러 묵묵히 걷고 있는 뒷모습,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긴 복 도를 따라가며 아이들의 뒷모습을 끈기 있게 담아내고 있는 카 메라, 장차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지도 모른 채 피아노 건 반을 두드리고 있는 소녀의 뒤통수, 단조롭다면 단조로운 장면 이지만 베토벤의 음악과 어울려 시적인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모습 속에서 다른 존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롱'이 담긴 시선이었지요. 이제 16분 후면 죽을 운명인데 그것도 모른 채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다른 여자도 한 번 돌아보는 여 유, 죽는 순간에도 죽는 줄 모르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심, 이 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 대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조롱하는, 현실이라는 화면 밖의 존재는 도 대체 어떤 존재일까? 게임을 하던 알렉스와 에릭이기도 하고, 오프닝 후 바로 등장하는 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술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다른 집 화단을 들이받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존재에게 합리성이나 선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 이상한 존재가 운전하는 차안에 갇힌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 다.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나고요?

“내가 없다는 걸 알면 죄도 사라진다고 한 것처럼 내가 없다면 죽음도 없는 것이므로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여주었던 뒷모습 은 나중에 알렉스와 에릭이 하는 게임화면에서 다시 만나게 됩 니다. 영화에서처럼 뒷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고, 그 뒤를 총구가 겨누고 있습니다. 물론 발사 명령을 내리 는 것은 알렉스와 에릭이구요. 알렉스와 에릭의 손동작 하나로 게임 속 사람들은 고꾸라지면서 죽어갑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카메라가 불안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뒤통수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얼마 후 아이들은 게임에서처럼 알렉스 와 에릭이 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게임 속 아바타를 죽 인 것은, 총구를 움직인 또 다른 아바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 바타에게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알렉스와 에릭이라는, 보이 지 않는 존재에 의해 아바타는 움직일 뿐이었지요.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목숨도 알렉스와 에릭에 의 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알렉스와 에릭은 게임의 또 다른 아바 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렉스와 에릭으로 하여금 총을 쏘게끔 명령한 다른 존재가 분명 있습니다. 카메라가 쫓는 아이들의 뒷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에릭과 알렉스의 뒤를 쫓 아가지만 그들에게서도 뚜렷하게 살인의 동기를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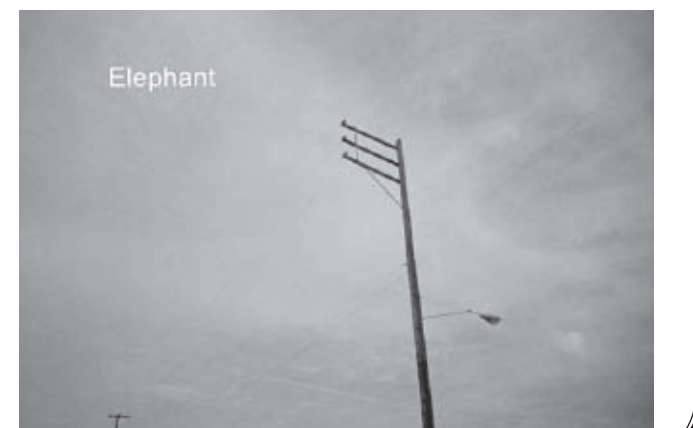
알렉스는 피아노 앞에서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했으며, 에릭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총기를 구입했 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즉흥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심드렁했습니다. 끔찍한 재앙의 필연적인 이유 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의 핵심에 왕따문제를 거론하지 만 영화는 이 견해에 반기를 들기 위해 범행의 첫 번째 희생자로 왕따 소녀 미셸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왕따가 이유가 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본 죽음의 모습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제멋대 로였습니다. 피살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제멋대로였고, 또한 피 살자들에게 조금의 단서도 주지 않을 정도로 불친절했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우리 처지는 카메라 앞에서 뒤통수를 보이며 걷던 아이들과 다름없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그 죽음의 결정권자는 게임을 즐기던 소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술 취한 듯한 그 누구인 것입니다. 미셸이 올려다보 던 하늘에 혹시 있는지 모르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는 술 취한 남자처럼 제 정신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참 가여 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 두 명의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삶과 죽 음을 지켜본 감독이 죽음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 보 여준 것처럼 제멋대로이고, 술 취한 남자처럼 통제 불능이고, 갑 작스런 것일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에서 노 선사는 빠진 이빨을 버리는 퍼포먼스 정도로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불 교는 죽음의 원인이나 형태에 집중하기 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 는 태도에 더 마음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 는 자아에 집중했을 때는 영화에서처럼 이해 불가능한 현실에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맞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기본 설정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 면 죄도 사라진다고 한 것처럼 내가 없다면 죽음도 없는 것이므 로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빠진 이 빨을 버리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저 담 당할 뿐입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初發心自警言



초발심
자경문

최정환

初發心自警言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불교총지중 법장원

최정환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우리가 놓아놓지, | 사랑이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변화하는 성장기에 내면의 상처를 완화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아성장을 도와주는 집단심리상담프로그램입니다.

주최 |  불교총지중 만다라청소년능력개발원

주관 |  중독예방교육원 명상센터 공감

 포이에시스

 READINGCLINICCOOP
모두인성교육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